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9, 선거 공식, 번호 4: 믿음, 복음 및 부름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4: 믿음, 복음, 그리고 소명입니다.

우리는 선거, 선거, 믿음에 대한 몇 가지 결론과 함께 구원 또는 구원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그런 다음 선거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믿음. 성경은 구원의 수단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6:31.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2.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선거가 믿음의 원인이며 믿음은 선거의 결과임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6:35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오는 것을 그를 믿는 것으로 정의하신 후에,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에게 사람들을 주시는 것은 요한이 택함을 묘사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올 것이요, 그를 믿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선거가 믿음보다 앞선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돌아선 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누가는 선거와 믿음을 결합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였고, 영생에 임명된 모든 사람이 믿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본문은 신성한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본문은 영생에 대한 신성한 임명을 이방인들의 믿음보다 앞세웁니다.

데이비드 피터슨은 그의 주석, *사도행전*, 신약 주석 시리즈의 기둥, 399~400쪽에서 누가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여 그의 택함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썼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일어납니다.

인용문 닫기.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에 정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믿음의 원인이자 결과가 아닙니다.

셋째, 바울은 우리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진 그의 사랑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용문: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3.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뜻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 영원히 택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초기 성화와 믿음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 택함의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거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이런 이유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선거에 따라 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11.

몇 구절 뒤에 사도는 결론을 내리면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노력을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9:16.

요한, 누가, 바울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믿음, 선택, 복음으로 귀결됩니다. 선택은 성경적 교리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와 비례하여 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왜 구원받는가를 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이유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에 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반복이지만, 아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두 번째로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과 죄에 대해 확신시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죽음, 성령의 역사, 복음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구원의 근원, 근거, 원인이 아닙니다.

신은 존재하고, 그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구속자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믿음을 갖고, 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우리는 원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활동합니다.

또한 바울이 구원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 온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에베소서 1장 13절). 선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선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베냉의 바

나비 아 소호토 와 케냐의 사무엘 네기 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섯 가지의 "나"의 뜻이라는 형태로 약속을 주신 방법을 유익하게 지적합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선교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5-6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의 언약 백성, 그의 소중한 소유, 그의 제사장 왕국, 그의 거룩한 민족입니다.

특이성은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신이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의 특이성이 보편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것이요, 온 땅이 내 것이니,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며, 그는 택하신 백성을 통해 민족들에게 다가가실 계획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독특성을 통해 그와 그의 길을 증거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포를 통해 그를 증거할 것입니다.

인용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민족들에게 전하고, 민족들을 하나님과의 속죄의 수단으로 인도합니다. 이 인용문은 유명한 책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The Mission of God* 에서 따온 것입니다. IVP, 2006, 331쪽.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차분하게 글을 씁니다. 그가 구원 역사에 대한 엄청나게 복잡한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는지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교회, 신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책임.

그는 자신의 신학적 담론을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강렬하고 끊임없는 부담을 언급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옥에 가는 것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로마서 9:1-5. 그런 다음, 무겁고 자세한 논문을 쓴 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그의 깊은 열망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인용문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0:13.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을 반복합니다.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 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온다.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놀랍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진리에 반응할까? 과거의 두 목소리가 많은 도움을 준다. 첫째, 우리는 19세기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이 인용한 것처럼 겸손하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내가 신을 이해했다면, 그는 참된 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는 나를 이해하도록 의도된 신의 진리이다. 내가 올라갈 수 없을 때, 나는 무릎을 꿇는다.

천문대를 지을 수 없을 때, 나는 제단을 세운다. 무한한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의 지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다.

그것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편 139편을 암시합니다.

둘째, 우리는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케리가 강조한 대로 복음을 나눕니다. 인용하자면, 우리의 축복받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왕국이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대의의 선함,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의 멸망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도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신 선택 교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들은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부름입니다. 매우 간략한 성경 요약은 한 후, 복음적 초대로서의 부름과 수행적 소환, 효과적인 소환으로서의 부름을 구별하는 체계적인 부름 공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름은 종종 누군가의 이름을 식별하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진 초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르심은 구약과 신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 즉 사람들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하는 복음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복음 부르심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복음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을 사람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그가 선택하신 대로, 복음 부르심을 통해 내려집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복음의 부르심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구원은 복음에 대한 그의 무료 보편적 제안과 그의 효과적인 부르심 모두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르심은 동사 부르심과 명사 부르심이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성경적 요약이었습니다.

너무 간략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부르심, 체계적인 공식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구원론, 구원의 교리에서 주목할 만하고 너무 자주 간과되는 주제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 부르심은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칼빈주의의 이름으로 어떤 교회나 개인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부르던 대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경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에 대한 책임으로 여기신다. 요한복음 3:18,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마지막 날의 판결, 정죄의 언어를 사용하며, 정죄가 아니라 정죄와 정당화로 더 잘 이해됩니다. 요한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것이 개념입니다. 그 사건들은 마지막 날에 속하지만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복음 전파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인류는 정죄받지 않은 자와 정죄받는 자의 두 그룹으로 나뉘고, 마지막 날에는 그 차별이 확인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은 자에서 정죄받는 자로, 정죄받는 자에서 정죄받지 않거나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24은 사실, 나는 세 번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불신은 성경적으로 죄가 됩니다. 명백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24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노라. 너희가 내가 그라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8은 돌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복을 내리시고, 분명히 같은 무리, 심지어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같은 무리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입니다(데살로니가후서 1:7).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세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이런 종류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오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경이로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불신에 대한 책임으로 삼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도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명예나 재산이 아니며, 운동 능력이나 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중요한 삶, 즉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인간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절대적인 신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복음적 부르심과 함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부르심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을 내리신다. 전통적으로 부르심의 이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외부적 부르심과 내부적 부르심이라고 불렀다.

저는 이 용어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외부에서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을 한다면 다시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그것은 외부적 부르심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내적 효과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어떤 사람들은 외부적 부르심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내적 부르심만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부 호출은 외부 호출을 통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이름은 외부 호출과 외부 슬래시 내부 호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이름은 복음 호출과 효과적인 호출입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복음 초대로 말합니다. 복음 부름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교리에 따르면,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부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제공하지만, 그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그의 신비로운 내적 주권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복음 부르심은 복음 초대로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수행적 소환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적 초대로서의 부름. 이러한 가르침을 더 큰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체계화 작업을 계속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듯이, 에스겔 18:23,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가? 이것은 주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 대신, 그가 그의 길과 삶에서 돌이킬 때 나는 기뻐하지 않는가? 다시, 출애굽기 18:23과 미안합니다 에스겔 18:23, 그리고 같은 선지자가 에스겔의 33:11을 봅니다,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선언이다.

회개하고 에스겔 33:11에 따라 살아라. 그러므로 이사야는 선포한다. 나에게로 돌아와 땅 끝까지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22. 구약성서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한다. 이사야의 아름다운 구절이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땅 끝까지 구원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22. 요나가 니네베로 마지못해 선교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예언자가 고백하듯이, 인용하자면, 그것이 내가 처음에 타르수스로 도망친 이유입니다.

나는 당신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한 사랑이 풍부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나 4:2.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정치적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으악.

신약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9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신약에서 복음의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도자들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도르트 시노드의 아르미니우스파는 개혁파가 복음 제안, 복음 부름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제안이라고 거짓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 그것은 설교자들의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형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믿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학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처럼 전적 타락,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믿지만, 우리처럼 무조건적 선거, 우리가 믿지 않는 제한적 또는 특정적 속죄, 우리가 믿지 않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도르트와 칼빈주의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은 그의 무조건적인 선택, 특별한 속죄, 그리고 성령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 입증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복음이 값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사실임을 명백하게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설교자들의 진지한 열망입니다. 아마도 저는 제 신학적인 반대자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자선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내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일관성이 없고, 신학적으로 일관성이 없지만, 성경적으로 충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그들이 신학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고 성경적으로 더 불충실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불일치가 있다면, 우리는 불일치, 역설, 모순, 신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좋은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것을 기뻐하며, 결국 신학적으로 통찰력 있거나 완벽하거나 일관성 있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충실한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예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피터슨이 칼빈주의에서 일관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원하시고 복음을 제공하는 것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이라고 말할 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와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복음과 그 초대와 약속을 나누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름에는 복음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에는 초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초대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의 겸손을 요구하며, 나 자신의 노력에서 눈을 돌려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신뢰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초대를 포함합니다. 복음은 약속, 영생,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의 용서를 포함합니다.

많은 성경 본문에 복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40,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40.

사도행전 16: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16.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16, 히브리서 9:11, 12.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온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고, 자기 피로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11과 12.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부르심이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과 17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37. 예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기로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도성이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얼마나 자주 모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루살렘을 탄식하며 무료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갈릴리 도시에서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신 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는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5 당신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었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기로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비난하고 죄인들에게 아버지를 주권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성경은 항상 절대적인 신의 주권과 진정한 인간의 책임을 나란히 제시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복종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성경적 신비로 인정합니다.

나는 조심하고 싶다. 나는 신비를 성경적으로 계시된 진리로 정의하는데, 이는 필요하지만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구원받은 인간조차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두 가지 큰 것은 삼위일체 교리이다.

신은 하나다. 신은 셋이다. 우리가 하나됨과 셋됨을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철학적 불일치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둘 다 결국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한 분, 영원히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신이라고 확언합니다.

우리는 이단을 배제하고 거부하며 매개변수를 설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인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성육신에서 그는 한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이단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여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신비, 즉 모순과 역설은 분명히 성경적이며 기독교 신앙에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를 부인하면 길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신의 주권과 진정한 인간의 책임, 책임성, 유책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구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앞의 두 가지만큼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것들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신비롭습니다. 누가복음 22:22.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신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정하셨지만, 그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습니다. 유다는 주인을 배신한 데 대해 책임이 있고 유죄입니다. 잠깐만요.

신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야, 맞지? 아니야. 유다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배신했지, 맞지? 맞아.

즉, 신이 그의 계획을 조정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신이 책임지세요. 유다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유다는 유죄입니다.

그는 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신이 신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이자 책임감 있는 인간의 유책 행위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한숨,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도시이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메시지를 거둬들여 거부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을 활짝 벌리시고, 지치고 짐진 자들이 구원의 나머지를 위해 자신에게 오도록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28.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19. 사도들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인용문, 하나님은 이제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장, 31장.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 이를 행하십니다. 인용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호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20.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20.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청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부르심은 구원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8~17에서 이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명확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네가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모든 사람의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복을 주시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기록된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였으니, 주여,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하는 것에서 나느니라. 로마서 10:8-17, Christian Standard Bible.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전하는 것을 듣는 것(17절)과 그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8절)입니다. 바울도 비슷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복음의 부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름, 효과적인 부름, 수행적 소환. 내가 거의 알지 못하는 언어 행위 이론은 발화, 언술, 그리고 발화를 구분합니다.

발화는 진술입니다. 발화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발화는 그 진술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름은 복음 부름 외에도 성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수행적 소환으로 사용됩니다. 즉, 신이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부르면 그 부르심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들립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복음 부르심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의 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신비롭게 일하시어 그들을 그의 아들에 대한 구원의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부르심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로마서 1:16). 뿌리를 내리는 씨앗처럼(마태복음 13:1~23,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2~25) 영은 복음을 강력하게 사용하여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가지 부르심은 사도행전 13:48과 49에서 작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아선 후, 누가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임명된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사도행전 13:48). 사도들이 복음을 무료로 제공한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듣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떼려야 뗄 수 없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측면에 대한 관점을 확대한다면, 성경이 우리가 영원 속에서 선택받는 것과 시간 속에서 부름받는 것을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매튜 에베네저가 말했듯이요. 이것은 ESV 글로벌 스터디 바이블, 매튜 에베네저, 성경의 위대한 진리, 1881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로마서 8:30, 그는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는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그는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23-24,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가 영광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 곧 그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대상들을 택하신 것, 자비의 대상들을 만드는 신성한 도예가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과 연결하는데,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복음이 그들의 경우에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13-14, 데살로니가후서 2:13-14,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는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결과를 모두 가져오십니다.

단기적으로, 하나님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만들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1, 주님의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수년 전 DA 카슨이 쓴 기사에서 가르쳐 준 중요한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성경과 진리라는 책에 공동 편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성경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로잡았고, 그 이후로 나는 그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적용을 이것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가 이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절, 단락, 성경 책, 또는 이 가르침, 이 교리를 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와 사역에서, 그 구절, 단락, 장, 책 또는 교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사역한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말씀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합니다. 에베소서 4:1. 우리는 복음과 효과적인 부르심을 구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에 크게 의지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이 다음 구절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 삶의 자유, 다른 신자들과의 조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그의 백성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을 의지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13,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최악스러운 방식으로 계속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다른 믿는 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로새서 3:15, 조화, 평화, 조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몇 년 전 해석학을 가르쳤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데, 학생들은 내가 그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선이해, 우리의 문화적 조건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당신 자신의 말로 쓰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갖고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이며 매우 미국적인 적용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개인의 행복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 자체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것은 집단 구절이다. 그것은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형제 자매들 간의 화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콜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세요. 마치 그 구절이 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 6, 7장. 하지만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 결과 우리는 교회의 연합,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7,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움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9과 베드로전서 2:21을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교리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이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행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 부르심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뢰는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이 자유, 조화, 거룩함, 심지어 고난을 겪을 의지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21,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남겨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21, 단기적인 효과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장기적 효과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18, 나는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4, 그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히브리서 9:15,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业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종말, 즉 우리의 최후의 소망과도 연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8-9, 여러분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친히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 주님의 뜻대로 종생의 교리에 대한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선거, 체계적 공식화, 번호 4: 믿음, 복음,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